

防災技術의 高度化를 爲하여

英國의 歷史學者 A.J 토인비는 그의 著書 「歷史의 研究」에서 民族歷史의 興亡盛衰를 挑戰에 대한 應戰의 結果로 보고 있다.

人類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內·外的 挑戰을 災難이라고 볼 수 있을때 이 災難을 슬기롭게 克服한 民族은 繁榮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民族도 文明도 모두 滅亡하였거나 衰退하였음을 우리는 世界史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

災難의 形態는 風, 水害, 가뭄, 雪害, 地震 등의 自然的인 것과 一般的으로 事故로 總稱되는 人爲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制御 가능한 人爲的 災難의 克服을 위해 技術을 練磨하고 나아가서는 自然的 災害의 슬기로운 克服을 위해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1人當 G.N.P도 7,000달러가 넘고 있어서 A. H 마슬로우 教授의 欲求段階說을 빌리지 않더라도 安全을 위한 欲求가 國民的 欲求로 噴出되는 時點에 있어 防災 政策의 方向도 基本的 欲求를 積極的으로 充足하기 위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防災에 관한 技術의 高度化는 必然的인 課題이다. 防災技術의 高度化는 다음 몇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現代社會는 날이 갈수록 多樣化, 複雜化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現實에 適用



崔在洪 / 內務部消防學校長

가능한 技術이 必要하다. 이 防災技術이 一般的, 普遍的 技術 이어서는 그 效果를 期待할 수 없고 災難의 形態에 따라 類型別로 즉시 適用될 수 있는 技術이어야 한다.

둘째, 專門化를 피해야 한다.

專門化된 技術이란 特化되어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高次元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專門化는 時代的 感覺을 가져야 한다.

30여年前에는 自動車를 運轉하고 操作하는 機能이 대단히 놀라운 尖端機能이었지만 오늘날은 機能이라고 말하기조차 어색할 정도로 一般化되어 있음을 볼 때 專門性의 確保를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努力하고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防災와 關聯한 產業界, 學界, 研究所間의 폭넓은 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서로의 情報와 研究 結果를 교환함은 물론이고 國際的인 交流도 擴大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00年代는 冷戰의 崩壞와 함께 世界的 規模의 經濟戰爭時代가 豫想됨에 따라, 새로운 形態의 挑戰에 直面하여서는 人才의 養成, 폭넓은 情報의 蒐集, 專門的인 知識의 活用, 尖端技術의 研究開發이 곧 國力의 尺度가 될 것이다.

따라서 防災의 分野에 있어서 世界的인 尖端防災技術을 保有하기 위해서는 防災에 關여하는 우리는 항상 努力하고 研究하는 姿勢로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積極的인 綜合行政이 이루어질때 國民은 보다 편하고 豐饒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